



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가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제공)

의성에 터진 민란...

의성화물터미널 없는 소음 공항 결사반대

군위군 합의문 지키면서 의성군 합의문 왜 안지켜 의성군민 호구로 보이냐 더 이상 참지 못 하겠다 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이외 어떠한 조건도 수용 불가 입장 전격발표

민설치 명문화하리"는 황거가 거세다. 성년 민심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노동 처럼 밀려오고있다. 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신공항지원위)는 18일 70여명의 사화단체 장들과 손잡고 "의성지역에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 이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성군민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인내·양보하며 항공물류·항공 정비산업으로 소멸해 가는 우리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키고자 대구경북신공항을 유치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공항지원위는 "공동합의문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성군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위 합의문은 지키면서 의성군 합의문은 왜 안 지키느냐" 의성군민이 호구로 보이는가? 더 이상은 참지 못 하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의성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개항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고 소리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로만 해준다고 할 것인가? 검토중이라는 말에 더 이상 안 속는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해주겠다고 반

드시 명문화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성화물터미널 안되면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알고 강력 투쟁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신공항지원위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경북지사가 복수 화물터미널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렸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냐. 의성 화물터미널 없이 현실배치를 고집한다면 국토부 마음대로 공항은 못 짓는다고 독소를 날렸다. 때문에 성화물터미널 없는 소음만 남는 공항 결사반대한다는 빼이는 충고를 했다.

박정대 위원장은 "공동합의문을 무시하고 국토부 입맛대로 움직이는 복수화물터미널 전문가검토기구를 통해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책임을 회피할 것이 예상된다"며 "의성화물터미널 없는 소음만 남는 공항은 5만 군민과 60만 출항인사를 대표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복수화물터미널 반영과 관련한 입장변화와 의성군민의 정서, 대구·경북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용·박재성 기자

의성에서 민란이 터졌다. 의성 주민들은 "TK신공항 복수화물터

도태우 정치후원금 쇄도, 대구 '무소속' 심상찮다

대구 중·남구 보수후보 '김기웅-도태우' 구도... '보수표' 분열할까 관심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결정한 공천을 뒤집자 '지역 민심 무시'라며 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도 예비후보 대신 전략 공천한 김기웅 전 국토부차관은 지역 기반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서 내려쫓기인 '낙산공천' 시비도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추천제'를 통해 복구갑과 동구·군위갑에서 각각 현역 양금화·류성걸 의원을 배제한데 것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어 대구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팸플리 발원 논란 등으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 총선 판세와 여론이 바뀔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김기웅 전 통일부차관이 지난 17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도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 공천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도 변호사가 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혀 보수표가 분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론 분열에 따른 반

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현재 기준 대구 중·남구 총선 구도는 최소 민주당 예비후보, 김기웅 전 차관, 도태우 변호사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중·남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공천 반복과 돌풍을 겪으며 정권 차관이 뒤늦게 여당 후보로 공천장을 손에 넣었지만 지역 여론은 "실상 낙산하 공천이 아니냐"는 반발이 강해 도 변호사에 대한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도 변호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구와 남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겠다"고 언급해 선거 완주의지를 밝혔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보수층 조지력 장악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도 변호사를 지지한 전통적 지지층이 김기웅 전 차관 쪽으로 옮겨갈지, 아니면 도 변호사를 계속 지지할지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소 민주당 예비후보 측은 보수표가 '김기웅-도태우' 구도로 분열되는 틈새를 노려 중도층과 진보층 표심을 공략하며 무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채점 결과 등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 공개 재결 대구경실련 지난해 7월8일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관련 심사위원 후보자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대구시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대구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의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사위원 후보자와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 위원 후보자 이름은 공무원이 아니고 대구시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2023년 7월 8일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12.18.) 사업 관련 심사위원 후보자와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대구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만 공개하고,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제안서 채점 결과도 '법인 등의 영업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대구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을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은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명과 업체명을 제외하고 공개될 경우에는 사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결과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비록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공개되더라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일부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인 대구시는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조미경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19일 오전 데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9일 오후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는 '중구자원봉사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구시, 하자 논란 부실 아파트 강력한 행정조치 경고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내 집 마련 꿈 앓아가는 무책임 부실시공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대구시는북구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하자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구 북구 고성동 일대에 건립 중인 힐

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지하4층-지상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3월 중 입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26일 실시된 아파트 사전 방문에서 세대 내 가구와 타일, 창틀 파손 등 하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 가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시공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갈등은 심화돼 화의 집 회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내 집 마련 꿈을 앓아가는 무책임

한 부실시공을 묵과하지 않겠으며, 사용검사권자인 관할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해당 시공사, 감리자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반복되지 못하게 해 최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달빛동맹 견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달빛동맹 활성화,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 정민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양 공사의 임직원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현과 더불어 시는 공

동체 형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유·발굴 추진 △관련 업무 전반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실행 등을 약속했다.

대구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범죄피해자 신속한 피해 회복 일상 복귀 최선의 노력 앞장



대구경찰청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상 보호·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기존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조직 개편을 통해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활동에 나선다. 기존 가정폭력, 외국인 범죄 등 죄명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 여러 기능에 산재해 있던 피해자 지원 관련 회의도 일원화해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는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심리지원 기관, 외국인 전문기관 등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주택 화재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불에 탄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현장 정리’ 제도를 활용해 특수청소를 지원한 바 있다. 범죄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도 꾀한다.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도 펼친다.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업무 협약을 추진한 대구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자금 확보에도 나섰다.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황태용 기자



화재 폐허 속 꽃핀 이웃의 사랑...참 따뜻하다

산성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의용소방대원 주택화재 복구

군위는 지금 화재로 재산을 잃은 주택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7일 산성면 봉림리 이기완씨 집에서 불이나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었다. 이 불로 주택 1동(40㎡)이 전소, 가재도구, 생활품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군위군 산성면행정복지센터와 산성면 새마을남

남녀지도자회, 의용소방대원들은 18일 삼을 들고 주택복구작업 지원에 나섰다. 화재현장을 찾은 남녀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에 탄 생활용품과 폐건축자재 등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처리하고 전소된 집안 주변 대청소를 했다. 피해농가재기의지를 북돋았다. 적십자봉사회는 이불, 담요, 햇반, 생수 등을 피해농가에 후원,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의

용소방대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갑작스런 불의의 화재로 큰 시름에 잠긴 우리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규 산성면장은 “바쁜 시기에라도 화재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복구봉사 활동에 발벗고 앞장서 주신 새마을남녀지도자회원, 의용소방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동구청, 구민에 신뢰받는 부패 없는 동구 건설

2024 반부패·청렴시책 본격 추진 4대 추진전략 및 32개 과제 선정

동구청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 없는 청렴동구’를 목표로 2024 반부패·청렴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동구청은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4대 추진 전략은 △부패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활성화 △구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조성 △정

렴한 공직 분위기 확산 △선진 직원 청렴의식 함양 등이다. 지난 14일 ‘대구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는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구의 청렴도와 구민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더 정당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농정축산과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68개 사업, 사업비 71억원 대상자 3312명 지원 결정

군위군이 2024 농정축산과 소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4, 15일 이틀간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사공 열 농정축산과장과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장 등 각 분야별 분과심의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소

관 친환경과 식량대책, 축산경영 및 동물복지 4개 팀 지원사업과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을 설명했다. 사업의 효율성, 지원대상자의 적합성, 차후 예비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회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단위사업 68개 사업의 사업비 71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3312명을 최종확정 의결,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및 농기계 지원 △식량작물 생산 그리고 축산, 양봉 농

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이다. 소농농기계는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 원재 가격상승 등 농촌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공 열 농정축산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들에게 신속히 확정 통보하고 빠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의 농업환경 변화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 국·시비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치매환자 대상 기억이음센터 운영

치매환자 기억이음 센터 연중 상·하반기 나눠 운영



달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억이음 센터 1기를 운영한다. ‘기억이음 센터’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치매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프로

그램을 말한다.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기억이음 센터’프로그램은 푸드테라피, 산림·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대상자의 인지능력 향상과 흥미를 고려한 특별활동 위주로 구성했다. 군의 특색을 살린 비산산 치유의 숲 체험과 농업기술센터 연계 원예치료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매 회차마다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 기억이음 센터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된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 2회씩, 총 20차시 과정으로 5월까지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보건소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매어르신 센터 운영을 통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 치매가 있어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치매안심 달성군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모바일 헬스케어 모집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4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수성구민과 지역 직장인이 대상이다.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가운데 150명은 혈압·혈당·이상지질혈증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로 모집한다. 수성구보건소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실증연구에 참여하게 돼 나머지 50명은 협약약 복용자를 선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행태,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3회 기초건강체조와 대면 상담을 제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목표 설정한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성공적

파크골프 동호인 800여 명 갈고뒸는 실력 마음껏 발휘

달성군이 마련한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성공리에 막내렸다. 대회는 지난 15, 16일 이틀간 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렸는데 파크골프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 그동안 갈고뒸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 대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대통령기 대회 명칭으로 처음 진행되는 제1회 대회로 달성군이 전국의 유수 지자체와 경쟁해 유치의 영예를 안게 된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다. 대회는 일반부 남녀 부문, 시니어부 남녀 부문

단체전 부문 학생부로 나누어 운영됐다. 개인전은 36홀 스트로크 방식, 단체전은 36홀 포섬방식, 학생부는 18홀 포섬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회 대통령기 대회인 만큼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등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 줬으며, 뜻깊은 행사를 격려했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준 달성군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제1회 대회가 달성군에서 첫발을 내딛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제2회, 제3회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경북교육청, 2024 '책 쓰는 선생님' 32팀 출판 지원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발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2024학년도 '책 쓰는 선생님' 사업 공모를 한다. '책 쓰는 선생님'은 2021년 처음 시작된 사업

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창의적 교수법과 생생한 교수학습 비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교원들의 집필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심사를 거쳐 32팀을 선정해 팀당 250

만원의 출간지원비를 지원, 출판물은 도내 도서관과 학교에 보급해 교육활동에 활용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집필 팀 2개를 선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사제 간의 소통 과정에 관한 교육 사례를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 경북도가 키워낸 딸기, 뚝은감 4품종...

### 2024 상반기 종자위원회 개최 딸기 알타킹 등 4품종 처분 결정

경북농업기술원이 2024 경북도 상반기 종자위원회를 열었다. 종자위원회는 경북도에서 육성한 딸기와 뚝은감 4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처분을 결정했다.

종자위원회는 변리사, 농업인, 교수, 공무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위원회는 경북도 육성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가능 여부,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판매 예정가격 조정, 통상계약 실시 시 수익계약의 경우 신청자 조건 등 총 4개 분야 심사를 한다.

올 상반기 종자위원회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딸기 '알타킹', '비타킹'과 뚝은감 '태홍', 상주 동시 수분수 '상연 6호' 품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딸기 신품종 '알타킹'은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수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품종이다. '비타킹'은 25g 이상 특품과 비율이 높고 비

타민C 함량이 설향 품종보다 1.4배 높은 기능성 프리미엄 품종이다. 뚝은감 '태홍'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갑주 백묵'의 생리장해를 보완한 대체 품종으로서 과피 흑점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상주 동시 수분수 '상연 6호'는 최근 이상 기후로 증가하는 낙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분수로 평가받고 있다.

품종보호권 처분이 결정된 4품종은 품종보호권 유상양도가 가능하다. 향후 민간업체 등 통상계약 실시 후 올해 농가에 보급한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경북 농업대전환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대구교육청, 일상감사·계약심사 예산 124억원 절감

2022년 64억8000만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124억원을 절감했다. 일상감사·계약심사는 발주 전 학교(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을 위해 산출한 원가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교육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계약심사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8건, 1647억원이 증가한 총 714건, 5362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24억4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는 2022년 64억8000만원 대비 약 92% 증가한 수치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등 공사 물량 증가로 2022년보다 심사금액이 증가한 점과 공사 지역 공·물품 구매 방법 변경, 자재·물량 등 산출내역과 원가계산 조정 등 제정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다. 공사 분야는 원가의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감액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공사의 품질 향상과 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과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대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 '보합'...

전세가는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달성군만 유일하게 전년 동월 2억2600만 원 대비 1.52% 상승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2억6700만 원으로 전월과 변동이 없다. 지난해 2월(2억7950만 원)에 비해서는 1250만 원(4.68%) 내렸다. 중위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구·군별로는 4억4850만 원에서 2.28%(1000만 원) 내린 중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달성군 2억2950만 원, 동구 2억4200만 원, 북구 2억1750만 원, 서구 2억4950만 원으로 각각

1.3%(300만 원), 0.82%(200만 원), 0.68%(150만 원), 0.2%(50만 원) 내렸다. 달성군만 유일하게 전년 동월(2억2600만 원) 대비 1.52%(350만 원) 상승했다. 남구(2억7900만 원), 수성구(4억6600만 원), 달서구(2억7300만 원)는 변동이 없다. 2월 중위 전세가격은 1억8300만 원으로 전월(1억8400만 원)보다 0.54%(100만 원) 내려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동구는 1억6900만 원으로 전월(1억6800만 원) 대비 0.59%(100만 원) 상승했지만 달성군은 1억5900만 원으로 전월(1억6000만 원)보다 0.62%(100만 원) 내렸다. 서구(2억6050만 원), 서구(1억5250만 원), 남구(1억8750만 원), 북구(1억7500만 원), 수성구(2억6100만 원), 달서구(1억8800만 원)는 전월 대비 가격 변동이 없다. 조여은 기자

## 경북 학생들, 환경활동·문화이해 등 국외교류 넓어진다

학생들 세계시민 덕목 지닌 글로벌 리더 성장 사업추진

경북교육청이 '2024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 캠프'와 '2024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 공모를 한다. 올해 47개팀을 맞은 '2024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 캠프'는 초·중·고 6교를 선정한다. 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중국 남사회복지지구 정부와 협력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허난성 정부와도 협력해 각각 3교씩 학교를 추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공모 신청은 18~28일까지로 운영 형식과 인원 등은 자유롭게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계획의 구체성, 운영의 효과성, 지속 운영의 가능성, 예산 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새달 5일 발표된다. '2024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은 과학, 환경, 음악, 스포츠 등 희망하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온라인 공동수업,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우즈베키스탄 학교와 1:1로 연결해 운영된다.



2022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육민이촌에서 열린 '2022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 블렌디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공모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다.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교를 선발한다. 사업의 구체성, 효과성, 지속 운영 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해 최종 대상 학교가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달 19일에 발표된다. 교육청은 1:1로 연결된 우즈베키스탄 학생 방한단을 초청해 교류학교 방문, 교류 성과 공유, 교육청 교육시설 탐관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김성용 기자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23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번 학교 등의 20여 명의 방문단을 초청해 산양중 방문, 포럼 현장 발표, 경주발명체 현교육관 견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임중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덕목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민주당 TK 비례대표 3명 모두 10위권 밖

총선 비례대표 순번 놓고 대구경북 또다시 '홀대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또다시 '홀대론'이 일고 있다. TK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후보 3명 모두 당선될 수 없는 뒷순위에 배치됐다. 18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민주당연합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전략지역 경선으로 선출된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13번에 배치됐다. 조원희 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번,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장 청년위원장은 28번을 받았다. TK 지역 민주당 지지자와 일부 당원들은 "당 지도부가 TK를 또 홀대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당초 전략지역 몫 비례대표 1위 득표를 이뤄 당선 안정권을 기대했지만, 13번을 받

으면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권이 크게 분열됐고, 민주당 지지 세력과 겹치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우 10~13석 정도가 현실적인 당선권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 위원장의 당선은 확실할 수 없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TK 몫으로 대구에서 활동한 정중숙 후보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9번에 배치했다. 당시에는 17번까지 당선됐다. TK 민주당 관계자는 "임 위원장의 경우는 당선 안정권인 10번 안에 들 줄 알았다"며 "대구와 경북을 또 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홍익락 전 의원, 20대 총선에서는 김현권 전 의원을 대구·경북 몫으로 공천했고, 2명 모두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임 위원장의 남편이다.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민주당 당선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경주시,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경주시가 오는 19~4월 8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m<sup>2</sup>)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개별 토지 40만1934필

지를 대상으로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

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시청 및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등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주시, 위기 청소년 든든한 울타리 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경주시가 올해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복지·보호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시는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시행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에 주요점을 두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지원의 중추적 기관이다. 전문인력 9명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부모교육 특강, 시민상담대개강,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위기 청소년 멘토링,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은 위기 청소년 성장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인당 200만원 이내 맞춤형 지원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22년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국비지원 중단으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지난해는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자 104명 발굴해 생활지원, 가족상담 및 의료지원, 학업 및 여가활동을 지원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아웃리치), 직업·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착을 돕는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청소년수련관(중학생 40명)과 안강청소년문화의집(초·중등 40명)을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평일 21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분기별 1회) 교과학습 지원, 전문 체험활동, 진로개발, 저녁식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초등학교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교생 72만7000원의 연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는 연 최대 15만6000원의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잠재력 발굴과 꿈을 이룰 수 있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가기관 모집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4월 1~30일까지 접수 받아

경주시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가기관을 모집하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한 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가기관 모집

시는 '2025년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사업은 임업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임산업대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등 2개 사업으로 나눠지며, 신청은 시청 산림경영과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

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 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이를 활용 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높여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조건 등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산림경영과(054-779-6333)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환 산림경영과장은 "2025년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우리시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문 가공업체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4월 한 달 간 신청·접수

경주시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 1~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

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접수기간 내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054-779-63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3개 공모분야 총 31개 마을 공동체 신청 접수

경주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4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발굴사업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총 31곳의 공동체가 접수하면서 높은 인기 속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전문가 평가 및 인터뷰를 통해 공동체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는 일반공모·기획공모·계속사업 등 지원 부문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사업지역은 경주시 23개 읍면동과 도시재생선정구역은 별도의 사업이다.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 유일의 공동체 공모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5억6700만원

경주시가 경유 자동차 1만 3101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및 유료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모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 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경주시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유원지, 봄꽃 탐방, 국립공원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및 푸드트

럭 대상으 위생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가한 경과 식품판매사 용·보관 여부 △조리대 등 위생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신고) 업체 제조제품 사용 판매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19일 오후 석보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장구메 가슴지 주민공청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9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청송군 4H연합회 연례총회 및 인원이 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경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은 지난 7일부터 매주 도담도담마을을 찾아가 2024년 찾아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요일'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아', '자존감', '관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그림책, 연극 활동, 보드게임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2024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7389필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권윤희 기자

# 영덕군, 105주년 기념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

제37회

### 경북지역 최대 독립운동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 마련

영덕군 영해는 일제시대 억압기 3·18 만세운동이 일어난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사단법인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영해 3·18만세운동 105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문화제를 개최했다.

영해 3·18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 영해면 장남을 기점으로 축산, 장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이 합류해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경북지역 최대의 독립운동이다.

영덕군은 영해 3·18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권 회복과 민족자존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올해로 37번째 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단법인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주요 행사인 햇볕행진과 함께 미래세대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와 버스킹 대회 등의 행사가 마련돼 활기찬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햇볕행진을 참여한 한 관광객은 "감동적인 만세운동의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셨던 당시 독립운동가와 펼쳐 일어섰던 민초들이 있어서

금의 우리가 있음을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한규상 회장은 "이번 행사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준비했다"며, "영해 3·18만세운동이 상징하는 애국과 충절의 가치는 나라를 위해 세대가 함께 연대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2024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해설사 간담회

### '산토리니' 보다 뛰어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울릉군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 12월 27일 국내 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준받은 뒤 총 32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했다. 지난 6년간(18~23) 무려 173,386명의 탐방객이 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현재는 23명의 해설사가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8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실시한 인지도 부분 투표에서 51.6%의 득표로 이 부분 2위를 기록하는 성과까지 올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릉군은 '2023년 지질공원해설사 운용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설명을 통해 해설사의 이미지가 곧 울릉도·독도의 이미지가 된다는 해설사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난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리, 사동, 봉

래포포, 관음도, 태하인근 5개의 국가지질공원탐방객센터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의 23개 지질명소(Geological Site)에 대해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탐방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한권울릉군수는 "지질공원해설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그리스 산토리니보다도 뛰어난 우리의 자연유산인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청송,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청송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사업을 지난 4월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작년 120만원에서 10만원 증가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농지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교육 미이행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의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 도, 지역 맞춤형 생활에너지 기반 확충... 난방비 30% 절감

###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5년간 1443억 투입(1만3431세대)

경북도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4개 시군 22개 지역에 5년간 1443억원을 투입해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75개소 5129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경북은 전국 최다인 22개소 1443억원(국비 722,

도비 173, 시군비 405, 자부담 143)을 투입해 1만3431세대에 LPG배관망을 구축한다.

사업은 기존 세대별 LPG, 연탄, 등유 보일러 사용 방식과는 다르게 공동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집단 공급해, 사용 편의 향상과 유통구조 단순화로 3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655세대), 청송군 진보면(885세대), 영양군 수비면(277세대), 성주군 초전면(570세대) 4개 면에 99억원(국비 49,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을 투입해 업무협약, 주민

설명회,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등을 실시한다.

내년엔 148억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공사 완료 및 가스공급을 시작한다.

향후 2차(2025~2026년) 6개소 408억원, 3차(2026~2027년) 5개소 361억원, 4차(2027~2028년) 6개소 427억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나간다.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는 별도로, 1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97개 마을 1만2644세대에 1233억원을 투입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실시했다. 권윤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9일 오전 금호초등학교 정문에서 영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안전자연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9일 오전 남서울웨딩홀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장실에서 열리는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탁식에 참석한다.



### 제4회 영천스타배 족구대회 열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단포축구장 A구장과 단포유소년 축구장에서 열린 제4회 영천스타배 족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천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영천시족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34개 지역에서 모인 146팀 1000여 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초정일반부, 경북2·3부, 이벤트부, 여성부, 60대부로 나누어 리그전으로 예선을 치른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부별로 공동 3위부터 1위까지는 상금 5만 원~6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 감독과 심판에게는 상장과 족구 공등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발휘해 우승을 향한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스포츠맨십 정신을 발휘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족구 동호인 간 친목도 다지고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영천에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영주시, '여행가는 달 3월엔 여기로' 관광객 환영맞이

## 술기로운 여행생활 영주편 이용객 70명과 함께 진행

영주시는 지난 16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 3월엔 여기로' 기자여행(충청·경북 미식투어) 관광객 70명을 맞이했다.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3월엔 여기로 기자여행' 상품은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여행 코스로 이뤄져 있다.

이 상품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3만 원에 교통, 식사, 관광지 입장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한다.

'충북·경북 미식투어' 테마로 편성된 영주여행은 이벤트에 당첨된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술기로운 여행생활 영주편' 상품이다.

이날 아침 서울역을 출발한 관광객들은 1시간 40분 후 영주역에 도착해 시가 준비한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2개 조로 나뉘 연계차량에 탑승해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동하면서 하루 동안 영주여행을 즐겼다.

점심으로 혼연된 맛이 일품인 '영주황정살뎡뎡'을 먹은 관광객들은 발효체험학교 '떡움'으로 이동해 바쁜 일상 속 느림의 미학을 느껴볼 수 있는 '나만의 인삼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세계유산 부석



사의 108계단을 오르며 멋진 풍광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숨겨진 미식 '영주복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영주를 처음 방문했다는 관광객 천0진(34세, 서울시) 씨는 "영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하루였다"며 "선비문화축제와 소백산 철쭉제가 개최되는 5월에도 가족과 함께 다시 한

번 오고 싶다"고 말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KTX-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당일 여행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영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 홈페이지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반편 관광택시,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 무료

지원 등을 꼼꼼히 챙겨 보다 알차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5월의 첫 주말, 황금연휴인 4일부터 6일까지 선비촌, 소수서원 및 문정동치 일원에서 개최되고, '영주 소백산철쭉제'는 5월의 마지막 주말인 25일부터 26일까지 영주 소백산 일원 및 영일동치에서 열린다. 전성기 기자

## 영천시, 청년 창업가와 함께 소통 행정 펼쳐

영천시는 지난 15일 관내 청년 CEO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격려했고 앞길을 응원했다.

동은금손은 수공예, 액세서리, 다양한 굿즈 판매 및 체험 클래스 운영, 아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춰 창업한 사업장으로, 지난해 특색 있는 창업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정아름 동은금손 대표는 "별의 도시 '영천'을 떠올리게 하는 예쁜 굿즈로 선물을 주는 사람



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영천에서 성장해 정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발굴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입주 시작

다산면 상곡리 일원 공동주택 631세대 공급 59형 376세대, 72형 142세대, 84형 113세대

고령군은 다산면 상곡리 일원 공동주택(월드메르디앙)에 대하여 3월 15일 사용검사 승인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산 "월드메르디앙"은 2016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사업 착



공했다. 월드메르디앙은 최초 건설사 부도 및 코로나 시국, 화물연대파업 등 준공까지 상당히 어려운 난

관이 있었다.

고령군,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입주예정자 대표단의 사업정상 추진 노력으로 준공을 하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631세대로 59형 376세대, 72형 142세대, 84형 113세대, 6개동 지상 33층의 건축물로 조성돼 고령군의 랜드마크로 이름을 올렸다.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약 1500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월드메르디앙 준공으로 인구감소가 가속되는 인근 시·군과는 달리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봉사활동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봉화송이테마공원과 내성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협의회 임원단,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내성천 일대 주변을 청소했다.

김시우 협의회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으로 학습문화 활성화하고 이바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렇게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민간주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로당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봉화군과 경상북도 대내외 평생학습 행사 지원, 복지기관 봉사 등 평생교육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기술·재능 등 자원 발굴을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봉화군은 2023년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분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24년 봉화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영주  
YEONGJU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 영주여행

영주시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상주시 칠곡군·김천시·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 협력

상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도시 간 상호 협력 차원에서 교차 기부 및 공동 홍보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은 경북 중·서부권 시군인 상주, 칠곡, 김천, 구미의 지역 간의 화합 및 우호증진, 고향사랑 상호협력을 목표로 지난 2023년 1월 체결하여 각 지역 축제 행사 등에서 합동 보급 홍보를 하는 등 서로 응원해 왔다.

올해는 정상원 상주부시장은 김천시에, 그리고 상주시 세정과 직원 일동이 칠곡군에 기부하는 등 20여명이 참여해 20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정상원 상주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지자체 간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공제 및 기부금의 30%를 담례품으로 제공하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기부 및 농·축협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안동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안동시는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 신청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5월에 예정된 법무부의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연장 조정했다.

지난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일손 부족 농가에 도움을 줬다.

2024년 상반기에는 계절근로자 500여 명의 고용 신청을 받아 3~4월 중 총 7회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를 계획하고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품목별 산정기준에 따른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외국인등록비 등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최준길 기자

# 포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착착’... 국가 공모사업 유치 총력

### 신약 개발·그린바이오 산업 중심 미래핵심 첨단전략 기술 역량 강화 2월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

포항시가 바이오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수년간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국내 최초로 도입된 극저온전자현미경,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 바이오 원천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PBC) 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는 유망 바이오기업의 벤처창업 플랫폼인 ‘바이오오픈노베이션센터

(BOIC)’, 글로벌 신약개발의 중심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R&D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강점들을 내세워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며 명실상부한 바이오 미래산업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핵심 목표는 우수한 R&D 인프라와 전문 인력양성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항시의 그린바이오 사업의 확장 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으로 농식품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으로 포항은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6대 유망분야 산업화 거점 중 동물용의약품 거점으로 지정된 바 있는 포항시는 동물용의약품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 연구개발에 이어 생산공정의 고도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에 지난 2월 공모 신청했으며, 첨단분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개발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캐프스’ 조성사업(총사업비 350억 원) 역시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다양한 추진 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이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 국내의 바이오 주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정정명 기자



## 문경시 “나무랑 쓱쓱~ 슈링클스 공예 체험부스 열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체험부스 운영

문경시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문화의집)는 지난 16일 청소년문화의집 1층 휴카페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슈링클스 공예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문경시청소년운영위원회 제22기는 진로체험 기획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체험을 통해 나무처럼 쓱쓱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무’라는 이름을 정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진로과정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제적으로 주제가 있는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첫 번째 진로체험 활동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예과정을 선택하여 지난 9일 직접 배웠고 주말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슈링클스 공예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됐다.

4월에는 친구랑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체험을 기획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체험부스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평소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나무’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과 즐거움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동수 기자

### 성주참의 체험형 테마공원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주군은 성주참의 체험형 테마공원 방문객들에게 성주만의 이색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토요일, 총 18회, ‘햇! 플레이(Play&Place) 성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내용은 참외, 농업, 자연을 테마로 매회 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방법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지난 16일에는 1회차 체험 프로그램인 ‘성주 참외 마스크트 팝아트 만들기’를 진행했다. 총 25명이 사전 신청했다.

참가자들은 성주 참외 마스크트를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며 성주를 알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 부모님은 “아크릴 물감을 신기해하는 아이를 보니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며 “또한 테마공원을 구경하며 힐링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주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저출생 시대 속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참의 체험형 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신청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s://www.sj.go.kr/sj-atc) - ‘알림마당’ - ‘성주참의테마공원’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4-930-8083)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재훈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금오천 벚꽃... 인생 샷은 구미에서

### 구미시, ‘여기서 다시 봄’ 개최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구미시는 ‘여기서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2024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금오천, 금오산 잔디광장, 금리단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23일과 24일 이틀간 △금오천을 중심으로 체험(마켓)존, 메인 공연, 청춘게인존, 푸드존을 운영하며, △금오산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청춘노래방과 청춘버스킹 △금리단길을 중심으로 거리버스킹과 상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의 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풍차, 열기구 등으로 이뤄진 4개의 수상 포토스팟과 함께 3D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등의 포토존이 5일간 밤낮으로 운영된다.

올림픽교를 시작으로 금오천을 따라 펼쳐지는



체험(마켓)존에서는 수제청, 가방, 알치마, 꽃차 등 수제로 만든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청춘마켓과 솜사탕·열쇠고리·풍선사탕갑 만들기 등 생활예술포 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춘체험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도 가능한 청춘아트페어를 마추할 수 있다.

금오천 수상무대로 꾸며지는 메인 공연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금요일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찰리제트앙상블, 천무용단, 버블타이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을 즐

길 수 있다. 24일에는 JTBC 팬텀싱어 3회 우승팀인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의 특별무대가 예정되어 있고, 금오산 잔디광장과 금리단길에서 거리 버스킹 무대도 즐길 수 있다.

금오테니스장 인근 산책로를 따라 조성되는 푸드존에서는 닭강정, 타키야케, 타코야끼 등 14가지의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쉬어갈 수 있으며, 청춘게인존에서는 로데오게임, 포켓사커, 슈팅스타 등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인근 상인들의 협조로 상춘객을 대상으로 참여 상가 화장실이 무료로 개방된다.

금리단길 일원에서는 가격 할인 등 각종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벚꽃영화제와 다제일 파티를 진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을 통해 가족·친구·연인 누구나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낭만 문화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 성주군 보건소,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매년 3월 24일은 결핵예방의 날이다.  
성주군은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2일까지를 결핵 예방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성주군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 저하 등으로 결핵균 감염에 취약하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약하거나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

어렵다.  
따라서 성주군 보건소는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증상 2주이상 지속, 체중감소 있다면 결핵의심 △기침이나 재채기 할때는 반드시 입과 손을 가리기 △기침 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결핵 검사 위 4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재훈 기자

## 예천군, 24년 달빛 건강체조교실 운영

예천군은 18일부터 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조교실은 10월 말까지 매주 2회 운영한다. 월, 수요일 19:30분부터 20:30까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야간운영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건강체조교실 운영 관련 궁금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팀(☎650-6474, 650-8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욱 기자

